

제 1 교시

국어 영역

[1~2] 다음은 라디오 대담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전통문화를 통해 조상들의 지혜를 살펴보고, 우리 삶 속에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마련한 ‘전통문화를 찾아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통문화 연구가 김○○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절기와 이와 관련된 속담을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A]

**연구가:** 네, 안녕하세요. 김○○입니다.

**진행자:** 먼저 청취자들을 위해 절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구가:** 예,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360° 도는 궤도를 황도라 합니다. 절기란 춘분점을 기준으로 황도를 24등분하고, 각 시기의 기후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름을 붙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음력으로는 계절 변화를 정확히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양력으로 24절기를 나누어 계절 변화를 예상하고 농사일에 대비하였습니다. [B]

**진행자:** 24절기가 음력에 따른 것이 아니었군요?

**연구가:** 예.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입춘이나 하지, 동지 등의 절기는 음력이 아니라 모두 양력에 기초한 것입니다. [C]

**진행자:** 그렇군요. 저도 절기가 양력에 해당한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네요. 이제 절기와 관련된 속담을 살펴볼까요? 하지(夏至)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관련된 속담이 있을까요?

**연구가:** 6월 21일경이 하지인데 농사일이 한창 바쁠 때입니다. 『속담사전』에 보면, ‘하지가 지나면 밭을 물꼬에 담그고 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논에 물이 마르면 농사를 망치게 되니까, 모심기 후 논에 물을 대주면서 바쁘게 일한다는 뜻입니다. [D]

**진행자:** 하지가 지나면 논물에 밭을 담그고 농사일을 분주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군요.

**연구가:** 예. 그리고 꽃샘추위가 왔을 때, ‘입춘(立春) 추위는 꺾다 해도 한다.’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 보셨나요? [E]

**진행자:** 아니요, 못 들어봤는데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죠.

**연구가:** 입춘 무렵 늦추위는 어김없이 꼭 온다는 뜻입니다. 2월 4일경이니 아직 추위가 완전히 물러가기엔 이르겠죠. ‘입춘 추위에 김칫독 얼어 터진다.’는 속담도 꽃샘추위의 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예, 간결한 문장으로 핵심을 표현하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놀랍네요.

**연구가:** ㉠ 선조들은 구체적인 생활상이나 사례를 활용해 속담 속에 삶의 지혜와 교훈, 공동체적 가치를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 7월 7일경인 소서(小暑)와 관련해 ‘소서가 넘으면 새 각시도 모를 심는다.’, ‘소서 모는 지나가는 행인도 달려든다.’라는 속담이 있죠.

**진행자:** 7월 7일경은 모를 심기에는 다소 늦은 시기죠. 따라서 이 속담들은 [가]

1. [A] ~ [E]에 나타난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진행자는 대담이 지니는 의의를 밝히고, 주요 화제를 소개한다.
  - ② [B]: 진행자는 청취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하고, 연구가는 용어의 개념을 설명한다.
  - ③ [C]: 진행자는 연구가의 말을 재확인하고, 연구가는 예를 들어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는다.
  - ④ [D]: 진행자는 대담의 화제를 전환하고, 연구가는 문헌에서 인용한 속담의 의미를 설명한다.
  - ⑤ [E]: 진행자는 연구가의 말에 의문을 제기하고, 연구가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궁금한 점을 묻는다.

2. 다음은 학생들이 대담을 듣고, ㉠을 바탕으로 [가]에 들어갈 내용을 추론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 학생 1:** ‘새 각시’, ‘행인’이 모심기를 한 사례를 들고, 이들의 구체적인 일상을 널리 알리려는 의도를 그 속에 담은 것이군요. .... ㉠

**학생 2:** 모심기를 하는 구체적인 생활상을 비유적으로 그리면서, 소서에 맞춰 모를 심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전달하는 것이군요. .... ㉡

**학생 3:** ‘새 각시’, ‘행인’ 같은 전문 일꾼을 등장시켜 이들이 소서에 맞춰 제 역할을 해야 농사가 잘 된다는 삶의 지혜를 강조하는 것이군요. .... ㉢

**학생 4:** 모심기와 관련이 적은 사람까지 소서 무렵에 일하는 사례를 들어, 제때 모를 심는 것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협동의 가치도 전달하는 것이군요. .... ㉣

**학생 5:** 소서 무렵에 ‘새 각시’와 ‘행인’이 모를 심는 생활상을 드러내, 이들이 모심는 때를 놓친 것을 풍자하며 항상 부지런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군요. .... ㉤

- ① ㉠      ② ㉡      ③ ㉢      ④ ㉣      ⑤ ㉤



[6~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계획**

- 처음(도입)
  - 비만을 규정하는 척도 제시 ..... ㉠
  - 비만에 대한 부정적 견해 소개 ..... ㉡
- 중간(전개)
  - 비만의 역설에 대한 개념 제시 ..... ㉢
  - 비만과 관련한 사망 위험률 언급 ..... ㉣
  - 비만의 역설을 반박하는 사례 소개 ..... ㉤
  - 비만과 노인 건강의 상관관계 제시
- 끝(마무리)
  - 비만의 역설에 담긴 의의 언급
  - 비만에 대한 인식 전환 당부

[A]

---

**초 고**

비만 척도로는 일반적으로 체질량 지수(BMI)가 많이 쓰인다. 체질량 지수는 체중(kg)을 신장의 제곱(m<sup>2</sup>)으로 나눈 수치이다. 예컨대 키 170cm에 몸무게 75kg이라면 체질량 지수는  $75 \div 1.7^2$ 으로 계산해서 25.9가 된다. 대한비만학회에서는 BMI 18.5~22.9를 표준 체중으로 보고, 18.5 미만을 저체중, 23.0 이상을 과체중으로, 25.0 이상을 비만으로 본다. 미국국립보건원은 ㉠ 비만을 야기하는 10대 질환을 발표했다.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 혈중 지질 농도 이상, 각종 암, 생식 기능 이상 등이 그것이다. 한마디로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996년 비만을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 그래서 근래 들어 뚱뚱한 사람이 마른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와 관심을 끈다. 이른바 ‘비만의 역설’ 현상이다. ‘비만의 역설’은 통념과 다르게 비만이 특정 만성 질환을 겪는 사람들 또는 고령층의 건강 및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 미친다는 의학적 가설이다. ○○대 △△△ 교수팀은 2002~201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에 포함된 30세 이상 100만 명을 대상으로, 비만과 관련성이 큰 고혈압, 당뇨,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체질량 지수와 사망 위험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과체중인 사람들의 사망 위험률을 1로 봤을 때, 중등도비만(BMI 25.0~26.4)의 사망 위험률은 0.86에 머문 반면, 저체중은 그 위험률이 2.24로 나타났다.

최근 또 하나의 ‘비만의 역설’이 발표됐다. 한국뇌졸중재활코호트연구단(KOSCO)은 국내 9개 대학병원에서 2012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급성 허혈성 뇌졸중 진단을 받은 18세 이상 남녀 2,057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노인 그룹에서 지방이 적당량 있어야 일상생활 능력이 빨리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몸에 좋은 면역세포가 ㉣ 만들어서 외부 저항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노인에게 지방은 치명적인 질환으로부터 ㉤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가]

6. ‘작문 계획’의 ㉠ ~ ㉤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7. ‘작문 계획’의 [A]에 따라 작성한 [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만의 역설이 뚱뚱해야 건강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다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비만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 계기는 제공할 것이다.
- ② 비만의 역설은 적당히 살집 있는 몸이 건강 유지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부분적으로 입증한 셈이다. 따라서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편협한 생각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 ③ 비만의 역설에 담긴 의의가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적당한 수준의 식사와 운동, 즉 생활의 절제가 필요함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 ④ 비만의 역설은 비만에 대한 지금까지의 사회적 통념에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여 준다. 그러나 비만의 역설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님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⑤ 비만의 역설을 널리 홍보하여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나아가 날씬한 몸이 건강하고 아름답다는 사회적 통념도 바꾸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8. ㉠ ~ ㉤를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이어진 내용을 고려하여 조사를 바꿔서 ‘비만이’로 고친다.
- ② ㉡: 앞 문단과의 연결을 고려하여 ‘그런데’로 고친다.
- ③ ㉢: 문장 흐름상 부적절한 단어이므로 ‘끼친다’로 고친다.
- ④ ㉣: 문맥상 피동 표현이 사용되어야 하므로 ‘만들어져서’로 고친다.
- ⑤ ㉤: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졌으므로 ‘몸을 보호하는’으로 고친다.

[9~10] 다음은 학생이 쓴 수필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해물탕을 좋아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아버지께서 새벽같이 수산물 시장에 가신다기에, 나도 따라나섰다. 하지만 내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았다.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발목 수술을 하여 지금 병원에 계시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열일곱 살 때 재봉 기술을 배우셨고, 이후 그 일을 하면서 평생 우리들 뒷바라지를 해 오셨다. 그런데 오랜 재봉질로 인해 오른쪽 발목의 연골이 심하게 닳아 절뚝거리는 정도가 심해졌고 얼마 전에 큰 수술을 받게 되었다.

오랜만에 나온 수산물 시장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고, 물건을 사고파는 소리로 여전히 활력이 넘쳤다. 아버지는 단골 가게로 가시더니 수산물들을 이것저것 둘러보셨다. 그때 내 눈에 힘없어 보이는 조개 한 마리가 눈에 띄었다. 입을 조금 벌린 채 살짝 내민 속살. 그 순간 국어 수업시간에 배웠던 문태준 시인의 '맨발'이라는 시가 떠올랐고, 나도 모르게 어머니의 발이 생각났다. 가족들을 위해 쉴 새 없이 재봉틀 발판을 눌러대시던 어머니의 발은, 어쩌면 저 조개처럼 지쳐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시장을 나오면서도, 수술실에 들어가실 때 보았던 어머니의 발이 계속 떠올랐다. 그러자 미안한 마음에 갑자기 눈물이 흘렀다. 평소에 내 방 청소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던 일, 밖에서 기분 나빴던 일로 괜히 어머니께 짜증냈던 일, 나를 걱정해 주시는 말인데도 잔소리만 생각했던 일 들이 떠올랐다. 나는 어머니께 어떤 딸이 되어야 할까?

9. 학생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소재들로부터 떠올린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해물탕 → 어머니를 위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구나.
- ② 재봉질 → 어머니께서 자식들 뒷바라지를 위해 고단한 삶을 사셨구나.
- ③ 수산물 시장 → 이전과 달리 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구나.
- ④ 시 '맨발' → 재봉틀 발판을 눌러대던 어머니의 발을 떠올리게 하는구나.
- ⑤ 어머니의 발 → 어머니께 미안한 마음을 느끼게 하는구나.

10. 다음은 학생이 수필을 쓰고 스스로 점검한 내용이다. 글의 마지막에 추가할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글의 마지막 부분이 의문문으로 끝나서 완결된 것 같지 않으므로 끝에 문장 하나를 더해야겠어. 글의 흐름에 맞게 문장을 구성하되 어머니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야겠어.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을 드러내면서 글을 마무리해야겠어.

- ① 항상 자식을 위해 희생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되새기며 더 효도하는 자식으로 거듭나야겠다.
- ②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힘없는 조개처럼 축 처진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겠다.
- ③ 재봉틀의 발판을 쉴 새 없이 눌러대시던 어머니처럼 항상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겠다.
- ④ 속살을 내민 조개처럼 지쳐 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며 부끄럽지 않은 자식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 ⑤ 어머니를 속상하게 했던 지난 시간들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어머니를 걱정시키지 않는 자식이 되어야겠다.

11. <보기>에 제시된 국어사전 정보를 완성한다고 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그르다<sup>01</sup>**  
 [I] 「 ㉠ 」  
 어떤 일이 사리에 맞지 아니한 면이 있다.  
 ㉡ 행실이 그르다. / 그른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II] 「동사」  
 「1」 ( ㉢ ) 어떤 일이나 형편이 잘못되다.  
 ㉣ 대세는 벌써 그른 지 오래다. / 이번 일도 이미 글렀다.  
 「2」 어떤 상태나 조건이 좋지 아니하게 되다.  
 ㉤ 이 환자는 회생하기에 그른 것으로 보인다.

**바르다<sup>03</sup> 「형용사」**  
 「1」 겉으로 보기에 비뚤어지거나 굽은 데가 없다. ㉦ 굽다  
 ㉧ 선을 바르게 굽다.  
 「2」 말이나 행동 따위가 사회적인 규범이나 사리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들어맞다. ㉨ 그는 생각이 바른 사람이다.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그들이 지지 아니하고 햇볕이 잘 들다. ㉯ 양지 바른 곳

**옳다<sup>01</sup> [올타] 「형용사」**  
 「1」 사리에 맞고 바르다. ㉰ 옳은 판단 ㉱ ㉲  
 「2」 격식에 맞아 타하거나 흠잡을 데가 없다. ㉳ 옳은 상처림  
 「3」 차라리 더 낫다. ㉴ ㉵ ㉶ ㉷ ㉸ ㉹ ㉺ ㉻ ㉼ ㉽ ㉾ ㉿

- ① ㉠에 들어갈 말은 '형용사'이다.
- ② ㉢에 들어갈 문형 정보는 '흔히 현재 시제에 쓰여'이다.
- ③ ㉣에는 '사실과 어긋남이 없다.'를 넣을 수 있다.
- ④ ㉤에 들어갈 말은 '그르다<sup>01</sup> [I]'이다.
- ⑤ ㉭에는 '변명하느니 말을 앓는 게 옳다.'를 넣을 수 있다.

12. <보기>의 [가]를 바탕으로 [나]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품사는 단어를 ‘형태’, ‘기능’, ‘의미’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 ‘형태’에 따라 불변어, 가변어로, ㉡ ‘기능’에 따라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나뉜다. 그리고 ㉢ ‘의미’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로 나뉜다.

[나] 열에 아홉은 매우 착실한 학생이다.

- ① ㉠에 따라 나누면 ‘착실한’과 ‘이다’는 가변어이다.
- ② ㉡에 따라 나누면 ‘열’과 ‘학생’은 체언이다.
- ③ ㉡에 따라 나누면 ‘은’과 ‘이다’는 관계언이다.
- ④ ㉢에 따라 나누면 ‘아홉’과 ‘학생’은 같은 품사이다.
- ⑤ ㉢에 따라 나누면 ‘매우’와 ‘착실한’은 다른 품사이다.

13. <보기>의 ㉠에 해당하는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중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두 개 이상의 문장이 연결 어미로 이어져 있다. 이때 앞의 절과 뒤의 절은 인과, ㉠ 조건, 의도, 양보, 배경 등의 의미 관계를 나타낸다.

- ① 책을 많이 읽으면 생각이 깊어진다.
- ② 책을 읽으려고 학교 도서관으로 갔다.
- ③ 책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 ④ 책을 읽고 있는데 친구가 나를 자꾸 불렀다.
- ⑤ 책을 다양하게 읽어서 그는 지식이 풍부하다.

14.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음운의 변동 중 ㉠ 축약은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반면 ㉡ 탈락은 두 음운이 만나면서 한 음운이 사라져 소리가 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축약과 탈락은 ㉢ 자음에서 일어나는 경우와 ㉣ 모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 ① ‘싫다[실타]’는 ㉠과 ㉣에 해당된다.
- ② ‘좋아요[조아요]’는 ㉡과 ㉣에 해당한다.
- ③ ‘울- + -는 → 우는’은 ㉠과 ㉣에 해당된다.
- ④ ‘크- + -어서 → 커서’는 ㉡과 ㉣에 해당한다.
- ⑤ ‘나누- + -었다 → 나눴다’는 ㉠과 ㉣에 해당한다.

15. <보기>의 담화 상황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엄마: 너 지금 뭐하니? 늦었는데 빨리 학교 가야 하지 않니?  
 아들: ㉠ 예, 가요. 뭐 좀 챙긴다구요.  
 엄마: 그런데 네 방이 많이 어질러져 있더라. 평소에는 잘 하더니, ㉡ 어제는 청소 안 한 거니?  
 아들: 저기, ㉢ 그게 어제 밤늦게까지 과제 발표를 준비하느라 시간이 없었어요.  
 엄마: 그랬구나. 그래, 발표 준비는 다 했구?  
 아들: 열심히 준비하긴 했는데, 친구들 앞에만 서면 떨려서 제대로 ㉣ 못 할 것 같아요.  
 엄마: 아니야, 잘 할 수 있을 거야. 자신감을 가져. 그래도 너무 떨리면 발표 전에 심호흡을 세 번만 ㉤ 해 보자.  
 아들: 네, 엄마. 그럴게요.

- ① ㉠: 부정의 물음에 대해 긍정의 대답을 사용하여 학교에 갈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 ② ㉡: 보조사를 사용하여 다른 날에는 ‘아들’이 청소를 했다는 사실과 대조하고 있다.
- ③ ㉢: 지시 대명사를 사용하여 ‘엄마’의 이야기에 언급된 내용을 다시 언급하는 것이므로 ‘이게’와 바꿔 쓸 수 없다.
- ④ ㉣: ‘못’ 부정문을 사용하여 앞으로의 상황이 자신의 능력 부족 때문에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청유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엄마’가 ‘아들’에게 함께 심호흡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욕망은 무엇에 부족함을 느껴 이를 탐하는 마음이다. 춘추전국시대를 살았던 제자백가들에게 인간의 욕망은 커다란 화두였다. 그들은 권력과 부귀영화를 위해 전쟁을 일삼던 현실 속에서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탐구하였다.

먼저, **맹자**는 인간의 욕망이 혼란한 현실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았다. 욕망이 과도해지면 사람들 사이에서 대립과 투쟁이 생기기 때문이다. 맹자는 인간이 본래 선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지만, 살면서 욕망이 생겨나게 되고, 그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욕망은 경계해야 하지만 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에, 욕망을 제어하여 선한 본성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가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 강조한 것이 ‘과욕(寡慾)’과 ‘호연지기(浩然之氣)’이다. 과욕은 욕망을 절제하라는 의미로, 마음의 수양을 통해 욕망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호연지기란 지극히 크고 굳센 도덕적 기상으로, 의로운 일을 꾸준히 실천해야만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맹자보다 후대의 인물인 **④ 순자**는 욕망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하였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이기적이고 질투와 시기가 심하며 눈과 귀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만족할 줄도 모른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에게 내재된 도덕적 판단 능력만으로는 욕망을 완전히 제어하기 힘들다고 보았다. 더군다나 이기적 욕망을 그대로 두면 한정된 재화를 두고 인간들끼리 서로 다투어 세상을 어지럽히게 되므로, 왕이 ‘예(禮)’를 정하여 백성들의 욕망을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예는 악한 인간성을 교화하고 개조하는 방법이며, 사회를 바로잡기 위한 규범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순자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동시에 나라에서 교육과 학문을 통해 예를 세워 인위적으로 선(善)이 발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이는 맹자의 주장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금욕주의라 할 수 있다.

이들과는 달리 **④ 한비자**는 권력과 재물, 부귀영화를 바라는 인간의 욕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라고 본 점에서는 순자와 같은 입장이지만, 그와는 달리 본성을 교화할 수 없다고 하였다. 오히려 욕망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본성이 이익 추구를 위한 동기 부여의 원천이 되고, 부국강병과 부귀영화를 이루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세상을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약육강식의 장으로 여겼기에, 군신 관계를 포함한 모든 인간 관계가 충효와 같은 도덕적 관념이 아니라 단순히 이익에 의해 맺어져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선을 행할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백성들에게 노력하면 부자가 되고, 업적을 쌓으면 벼슬에 올라가 출세를 하며,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받고, 공로를 세우면 상을 받도록 해서 특혜와 불로소득을 감히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라고 주장하였다.

1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욕망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소개하고 그 입장들을 비교하고 있다.
- ② 욕망의 유형을 제시하고 그것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 ③ 욕망을 보는 상반된 견해를 나열하고 그것의 현대적 의의를 밝히고 있다.
- ④ 욕망이 나타나는 사례들을 제시하여 욕망 이론의 타당성을 따지고 있다.
- ⑤ 욕망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보여주고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17.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욕’과 ‘호연지기’를 통해 인간의 선한 본성이 확충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② ‘예’가 ‘과욕’과 ‘호연지기’보다는 인간이 삶 속에서 실천하기 더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 ③ 개인적인 욕망과 사회적인 욕망을 모두 추구하는 인간의 본질을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 ④ 욕망 조절을 개인의 수양에만 맡기지 않고, 욕망을 외적 규범으로 제어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⑤ 무엇을 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불가피함을 직시하고, 이것의 조절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18. <보기>를 **맹자**의 입장에서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A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소문으로 A 음식점은 손님이 줄어들어 매출에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에 A 음식점 주인이 소문의 진상 파악을 경찰에 의뢰했고, 이를 조사한 결과 경쟁 관계에 있던 B 음식점 주인이 A 음식점에 빼앗긴 손님을 되찾고 싶은 마음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 ① A 음식점의 음식에서 이물질 발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이를 사실로 받아들인 손님들의 도덕성이 의심되는군.
- ② B 음식점 주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일은 이기적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니 사회적 제재가 필요하겠군.
- ③ A 음식점 주인은 B 음식점 주인이 선한 본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겠군.
- ④ A 음식점을 시기하는 마음이 B 음식점 주인에게 드는 것은 인간의 나쁜 본성 때문이니 의로운 일을 하면서 변화되어야겠군.
- ⑤ B 음식점 주인이 경쟁 관계인 A 음식점의 수익까지 욕심내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수양을 통해 절제해야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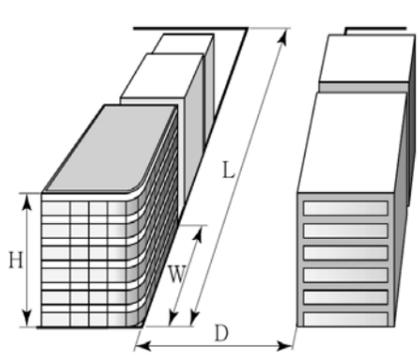
19. ㉠과 ㉡의 공통된 견해로 적절한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인간은 이기적 본성을 지니고 있다.
- ㄴ. 백성의 욕망을 다스리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 ㄷ. 사회적 규범으로 인간 본성을 교화할 수 있다.
- ㄹ. 인간의 욕망은 부국강병과 부귀영화를 이루는 수단이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도시에서 도로, 도로변의 건물, 가로수, 조성물 등 ‘가로(街路, street)’의 구성 요소들이 어울려 이루어내는 종합적 이미지를 ‘가로 경관’이라고 한다. 가로 경관은 시각적인 연속성과 복합성을 갖는데, 도시 설계나 경관 디자인을 할 때에는 가로 경관의 시각적 효과와 관련되는 몇 가지 척도를 고려해야 한다.



<그림>

첫째, 가로 경관을 디자인할 때는 도로의 폭과 도로변 건물 높이의 비율에 따른 시각적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도로 폭을 D, 도로변 건물 높이를 H라 할 때, 그 비율인 D/H가 1 일 때 균형 잡힌 느낌을 준다. 도로 폭에 비해 높은

건물이 많아 D/H가 1보다 작으면 폐쇄성이 강한 공간이 된다. 반면, D/H가 1보다 커지면 개방적인 공간이 된다. D/H가 3 이상 되면 너무 널찍한 느낌이 들 수 있으므로 가로수로 공간을 나누거나 랜드마크\*가 되는 공간에 시선을 유도하여 공간을 시각적으로 좁힐 수 있게 설계해야 한다.

둘째, 도로 폭과 도로 길이의 비율에 따른 시각적인 효과도 따져보아야 한다. 도로 폭(D)과 길이(L)의 비율(D/L)은 가로 경관의 정리된 느낌과 관련된 척도이다. 폭이 길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지면 ㉠광장 이미지의 공간이 된다. 이런 가로는 축제와 같은 큰 행사를 치르기에 적합하다. 반대로 도로 폭이 좁고 길게 이어지는 가로는 ㉡산책로 이미지의 공간이 된다. 이런 가로는 보행자가 중심이 되고, 이를 대표하는 변화가는 적절한 위요감과 친밀감을 형성한다. 가로가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길이를 일정하게 제한하여 구분하는 것이 좋다. 광장 이미지가 강한 가로는 2km, 산책로 이미지가 강한 가로는 1km를 넘지 않도록 설계해야 시각적으로 정리된 느낌을 얻게 된다.

셋째, 도로 폭(D)과 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 건물의 정면 폭(W)의 비율인 W/D도 고려해야 한다. W/D는 도로의 진행 방향에 대한 가로의 리듬과 관련이 되는데, 사람이 도로변 상점들에 눈길을 주며 걷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해하면 된다.

건물의 정면 폭이 도로 폭보다 작아 W/D가 1 이하인 건물이 연속되면, 보행자가 지루하지 않게 거닐 수 있으므로 가로는 활기에 넘치게 된다. 반면에 폭이 좁은 도로에 정면 폭이 큰 건축물들이 입지하게 된다면, 가로의 분위기는 단조로워지고 활기를 잃고 만다. 따라서 정면 폭이 큰 건물이 입지하는 경우에는 W/D가 1보다 작아 보이도록 건물의 정면을 분절하거나 변화를 주어 가로 경관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 좋다.

도시 경관이 도시의 경쟁력으로 각인되면서 가로 경관으로 대표되는 도시 경관의 개선이 최근 도시의 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시각적 효과와 관련되는 척도들과 함께 도로변에 있는 건축물의 색채, 간판, 가로수 등을 고려한 도시 설계와 경관 디자인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 \* 랜드마크(landmark): 주위의 경관 중에서 두드러져 어떤 지역을 식별할 때 목표물로서 적당한 사물
- \* 위요감: 둘러싸인 느낌

20.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도시 설계와 경관 디자인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 ② 도로변 건물의 특성 중 가로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 ③ 최근 도시 경관 개선이 이전보다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④ 가로 경관의 시각적 효과와 관련된 척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 ⑤ 널찍한 느낌의 가로를 시각적으로 좁힐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21.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D/L이 1/60인 가로는 1/20인 가로보다 ㉠의 성격이 더 강하다.
- ② 길이가 일정할 때 도로 폭을 줄이면 ㉡의 성격이 강해진다.
- ③ 적절한 위요감과 친밀감 형성이 강조되는 가로는 ㉡이다.
- ④ 정리된 느낌을 주는 제한 길이는 ㉠보다 ㉡이 더 짧다.
- ⑤ 대규모 행사를 치르기에 더 적합한 가로는 ㉠이다.

22.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시에서는 새로운 도시 경관 디자인을 위해 주요 가로에 대해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단, 각 가로의 도로 폭은 같고, 각 가로마다 건물 높이의 편차는 작았음.)

가로	A	B	C
D/H(평균)	0.8	2.0	1.2
W/D(평균)	0.9	1.4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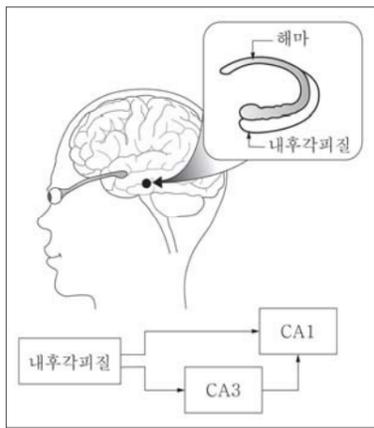
- ① A는 정면 폭이 도로 폭보다 큰 건물이 많은 가로일 것이다.
- ② B는 도로 폭과 도로변 건물들의 높이가 같은 가로일 것이다.
- ③ C는 개방성보다 폐쇄성이 강한 가로일 것이다.
- ④ A는 B보다 단조롭고 활기가 없는 가로일 것이다.
- ⑤ B는 C보다 낮은 건물들이 많은 가로일 것이다.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람들 중에는 유독 길눈이 밝아 길을 잘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번 갔던 길도 잘 못 찾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사람들의 공간 지각 능력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대뇌의 측두엽 안쪽에 있는 해마와 이를 감싸고 있는 내후각피질의 신경 세포들로 설명할 수 있다.

1970년대 오키프는 뇌가 어떻게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는지를 밝히고자 기억력과 관계 깊은 해마 연구에 몰두했다. 그래서 실험용 쥐의 해마에 전극을 꽂고 신경 세포가 내는 전기 신호를 기록하였다. 이 방법은 감각 정보가 전기 신호로 바뀌어 복잡한 신경 세포망을 거칠 때, 역치값\*보다 약한 자극에는 신경 세포가 반응을 안 하다가 역치값 이상이 되면 반응한다는 점을 이용하였다. 실험 끝에 오키프는 실험용 쥐가 특정 장소에 가면 신호를 보내는 '장소 세포'들이 해마의 CA1\* 부위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장소 세포들이 주로 시각으로 얻은 정보를 결정적 단서로 삼아 머릿속 지도를 만든다고 밝혔다. 해마는 기억을 단기간 저장하고 있다가 삭제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복과 학습을 거치면 대뇌피질에 장기 기억으로 저장된다. 위치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면 단서에 의존하지 않고도 길을 찾을 수 있다.

한편 오키프의 영향을 받은 모세르 부부는 쥐의 해마와 그 주변에 전극을 꽂고 실험을 하던 중, 또 다른 신호를 내후각피질에서 발견하였다. 이 신호들은 장소 세포와 달리 어둠 속에서도 반응하는 특징을 보였다. 또 그 신호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발견되었는데 그 지점들을 이어봤더니 바둑판과 같은 격자 위에 벌집 모양의 정육각형들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 신경 세포들을 '격자 세포'라 명명하게 되었다. 이 격자 세포들로 인해 쥐가 지각하는 전체 공간에서 특정 좌표의 위상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좌표들 사이의 거리도 계산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모세르 부부는 후속 연구에서 내후각피질의 위치 정보는 CA1로 바로 전달되기도 하지만, CA3\*을 거쳐 CA1로 전달될 수도 있음을 알아냈다. 이를 바탕으로 쥐의 CA3과 CA1 사이의 경로를 차단하여 길을 찾게 하는 실험을 했더니, 가본 길임에도 불구하고 길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처음과 비슷하였다. 왜냐하면 길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CA3의 회상 능력에 문제가 ① 생겼다 때문이다.

뇌 영상 기술의 발달과 함께 쥐에게서 발견된 장소 세포와 격자 세포가 인간에게도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과학자들은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내후각피질과 해마의 위치 정보가 불완전하게 결합되면 길치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길을 잃고 해마는 알츠하이머 환자는 내후각피질이나 해마가 손상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 역치값: 생명체가 자극에 반응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값  
\* CA1, CA3: 인지 능력과 관련되는 해마의 특정 영역을 나타내는 용어

23. 밑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② 대상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 ③ 특정 용어를 활용하여 현상이 나타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 ④ 대립하는 두 견해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절충론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묻고 답하는 형식을 사용하여 통념이 지닌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24.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대뇌의 측두엽 안쪽에 해마와 내후각피질이 있다.
- ② 신경 세포는 역치값 이상이 주어져야 자극에 반응한다.
- ③ 모세르 부부는 위치를 인식하는 신경 세포의 존재를 부정했다.
- ④ 반복과 학습을 통해 위치 정보를 대뇌피질에 저장할 수 있다.
- ⑤ 알츠하이머의 증상은 해마, 내후각피질의 손상과 관련이 있다.

25.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최근 한 연구팀은 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다. 먼저 불투명한 액체가 담긴 수조를 준비하고 물속에는 썰 수 있는 발판을 놓고, 수조 주변에는 위치 단서가 될 만한 다양한 표지들을 세워 두었다. 그리고 나서 정상 쥐(㉠), CA1만 손상시킨 쥐(㉡), CA3만 손상시킨 쥐(㉢) 순으로 수조에 넣어 발판을 찾으려 하였는데, ㉠과 ㉡는 발판을 찾아간 반면, ㉢는 발판을 찾지 못했다. 또 ㉠과 ㉡를 대상으로 단서가 될 만한 표지를 거의 없앤 뒤 발판을 찾아가게 했더니, ㉠과 달리 ㉡는 발판을 찾아가지 못했다.

- ① ㉠은 CA1과 CA3이 모두 정상이어서 위치 정보를 온전하게 처리할 수 있었겠군.
- ② ㉡가 적은 단서만으로도 발판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CA3의 장소를 회상하는 능력과 관계가 있겠군.
- ③ ㉢를 통해 CA3의 손상 여부와 상관없이 CA1이 손상되면 발판을 찾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을 알 수 있겠군.
- ④ ㉡에게 위치 단서가 충분히 주어진다면 발판을 찾는 훈련을 시키는 데 문제가 없겠군.
- ⑤ ㉡가 표지 없이도 발판을 찾아가게 하려면 CA1과 손상된 CA3 사이의 경로를 차단해야겠군.

26.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최선을 다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 ② 학교 주변에 새로운 문구점이 생겼다.
- ③ 새로 뽑힌 봉사부장은 듬직하게 생겼다.
- ④ 날카로운 못에 걸려 옷에 구멍이 생겼다.
- ⑤ 다음 달에 이사 가면 내 방이 생길 것이다.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에는 ‘상속’과 ‘증여’가 있다. 상속은 재산을 주는 이가 사망했을 때, 증여는 재산을 주는 이가 생존해 있을 때 이루어진다. 상속과 증여에는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를 각각 ㉢상속세, ㉣증여세라 한다. 이는 부의 세습을 통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를 막고, 부를 사회적으로 재분배하기 위해서이다.

상속과 증여는 모두 재산을 주는 이의 의지에 따라 재산을 받는 이가 결정되고, 재산을 받는 이가 세금 납부 의무자가 된다. 그런데 상속의 경우 재산을 물려주는 이가 유언 없이 사망하였을 때, 그의 상속 의지를 알 수 없다. 이에 ㉤대비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민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 1순위는 자녀, 손자와 같은 직계비속이고, 2순위는 부모, 조부모와 같은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조카, 백부모, 숙부모와 같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배우자의 경우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다. 배우자는 1, 2순위자가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고 1, 2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단, 임신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태아의 상속권을 인정한다.

상속과 증여에 항상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공제 제도가 있어서 상속과 증여가 그 금액 이하에서 이루어지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공제 금액은 상속과 증여가 이루어지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공제 후에 남은 총액이 같으면 상속세와 증여세가 같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상속세는 사망자의 상속 재산 총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지만, 증여세는 증여 받는 사람 각자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므로 재산을 나누어 증여하면 상속세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높은 비율의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일부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폐단이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증여와 상속 모두 재산을 준 후 10년이 지나야 완전히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10년 이내의 기간에 동일인에게 증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해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고, 그 기간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그 증여했던 재산도 상속 재산에 포함하여 세금을 재산정한다.

세금을 재산정할 때, 부동산에 대해서는 주의할 점이 있다. 부동산은 증여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세 2억 원 아파트를 주면서 아들이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하자. 그런데 10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사망하면 그 아파트도 상속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현재 그 아파트 가격이 3억 원으로 올랐다 해서 3억 원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한 시점의 가격인 2억 원을 대상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

\* 방계혈족: 직계혈족을 중심으로 옆으로 갈라진 혈족

27. 밑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의 무상 이전에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은 어떠한가  
-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 방식을 중심으로
- ②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부의 사회적 재분배 방안을 중심으로
- ③ 세금의 공평 부과, 어떻게 이를 수 있는가  
-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더 공평한 사례를 중심으로
- ④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 세금의 부과 대상과 적용 세율을 중심으로
- ⑤ 세금의 본질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 상속세와 증여세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중심으로

28.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과 달리 재산을 주는 이가 사망한 이후 부과된다.
- ② ㉣은 ㉠과 달리 납부 의무자의 우선순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 ③ ㉠, ㉣ 모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는 재산을 받는 사람이다.
- ④ ㉠, ㉣ 모두 적용된 세율이 높으면 공제 후 남은 금액이 크다는 의미이다.
- ⑤ ㉠, ㉣ 모두 부의 세습을 통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를 막는 데 기여한다.

29.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A씨는 가족으로 임신한 아내와 홀어머니가 있다. 그는 유언 없이 사망했다. 그에게는 토지와 예금이 있었는데, 죽기 5년 전에 당시의 시세에 따라 토지를 아내에게 증여하여 세금을 납부한 상황이다.

- ① 민법에 따라 A씨의 아내와 태아가 공동 상속인이 되겠군.
- ② 토지와 예금에 대해 서로 다른 세율로 상속세를 부과하겠군.
- ③ A씨의 아내가 이미 증여받은 토지도 상속세의 부과 대상이 되겠군.
- ④ A씨의 아내가 임신한 상황이 아니라면, 홀어머니에게도 상속권이 있겠군.
- ⑤ A씨의 아내가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서 현재의 시세를 고려할 필요는 없겠군.

30. ㉠ ~ ㉣의 문맥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권리 따위를 남에게 넘겨주거나 넘겨받음.
  - ② ㉡: 세금이나 부담금 따위를 매기어 부담하게 함.
  - ③ ㉢: 두 가지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서로 맞대어 비교함.
  - ④ ㉣: 알맞게 이용하거나 맞추어 씬.
  - ⑤ ㉤: 어떤 일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옳지 못한 현상.

31. (가) ~ (다)의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설의적인 표현을 통하여 화자의 가치관을 강조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어순을 도치하여 시구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4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안정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⑤ (다)는 (나)와 달리 감정이입을 통하여 화자의 내면을 표현하고 있다.

32. <보기>를 참고하여 ㉠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가)는 고려 유신으로 조선 개국에 참여한 작가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겉으로 고고한 척하는 이들을 비판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나)는 단종 복위를 꾀하다가 옥에 갇힌 작가가 세조의 회유를 뿌리치며, 권력을 탐하는 이들의 위선적 태도를 비판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가마귀 검다 ㅎ고 ㉡ 백로(白鷺)야 웃지 마라  
 것치 거믄들 속조차 거믄소나  
 아마도 것 희고 속 검을손 너뿐인가 ㅎ노라  
- 이직 -

(나)  
 ㉢ 가마귀 눈비 마즈 희는 듯 검노미라  
 야광 명월(夜光明月)이 ㉣ 받인들 어두우라  
 님 향(向)흐 ㉤ 일편단심(一片丹心)이야 고칠 줄이 이시라  
- 박팽년 -

(다)  
 [A] 앞 여울에 물고기와 새우가 많아 前灘富魚蝦  
 물결 뚫고 들어갈 생각 있는데 有意劈波入  
 [B] 사람을 보고 문득 놀라 일어나서는 見人忽驚起  
 여뀌꽃 핀 언덕에 도로 날아가 앉았네 蓼岸還飛集  
 [C] 목을 빼고 사람이 돌아가길 기다리다 翹頸待人歸  
 가랑비에 깃털이 다 젖는구나 細雨毛衣濕  
 [D] 마음은 여울의 물고기에 가 있는데 心猶在灘魚  
 사람들은 말하네, 기심(機心)\*을 잊고 서 있다고 人道忘機立  
- 이규보, 「여뀌꽃과 백로(蓼花白鷺)」 -

\*기심: 기회를 엿보아 이득을 취하려는 마음

- ① ㉠은 작가가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자신과 동일 시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 ② ㉡은 겉으로 고고한 척하는 무리를 가리키며, 작가가 비판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 ③ ㉢은 권력을 탐하는 자들에게 고초를 겪는 작가 자신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 ④ ㉣은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시대 상황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은 세조의 회유를 뿌리치고 단종에 대한 충의를 지키려는 작가의 굳은 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33. (다)의 [A] ~ [D]에 대해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물고기와 새우’에 대한 백로의 욕망은 [B]에서 ‘사람’ 때문에 일시적으로 충족되지 못하는군.
  - ② [B]의 ‘여뀌꽃 핀 언덕’은 [C]의 ‘사람’을 경계한 백로가 피신해 있는 공간이군.
  - ③ [C]의 ‘깃털’이 젖은 모습은 [D]의 ‘마음’ 때문에 백로가 처하게 된 부정적 상황을 보여 주는군.
  - ④ [D]의 ‘사람들’이 백로에 대해 보이는 인식은 [A]에 드러난 백로의 모습에 근거하고 있군.
  - ⑤ [A] ~ [D]에서 화자는 백로의 탐욕만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들’도 비판하고 있군.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푸른 하늘에 대롱대롱 매달린 까치밥이 없어지던 날, 월곡리에 있던 붉은 별을 붙인 사람들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들이 사라지자 피란 갔던 마을 사람들이 돌아왔다. 친정에 가 있었던 부면장네 부인과 아이들도 거지꼴이 되어 돌아왔으며, 서울에 있던 도련님은 푸른 제복에 권총을 차고 나타났다.

집에 돌아온 부면장네 가족들은 너무 지쳐버렸기 때문인지 두 어른의 죽음을 별로 마음 저리게 슬퍼하는 것 같지가 않았다. 이장집 식구들도 마찬가지였다. 집에 돌아온 그들은 슬픔을 짜낼 기력마저도 없어 보였다. ㉠ 그들은 배불리 밥을 먹고 몇 날을 푹 자고 나서야, 얼굴에 서서히 슬픔과 분노를 함께 떠올렸다. 슬픔보다 분노가 더 컸다. 자기 가족을 누가 죽였느냐면서 눈에 빨간 자운영꽃 같은 핏발을 뿔뿔하게 세웠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핏발 선 눈을 보고 있으면 마치 자신이 죄 지은 사람처럼 심장이 오들거리고 온몸의 힘이 쭉 빠졌다.

눈에 핏발을 세운 그들이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이 어느 놈이냐면서 뿌드득뿌드득 이를 갈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창 깎아들고 한데 어울려 햇불 밝히며 산을 오르내리던 젊은 사람들이 동짓달 서릿발에 구절초꽃잎 지듯 죽은 듯 숨을 죽였다.

그러던 그들이 어느 날 아침 우르르 부면장 집으로 몰려 오더니, 쇠죽을 끓이고 있던 아버지의 목에 삼으로 끈 밧줄 흘랑이\*를 걸고 개 끌 듯 끌고 나갔다.

[A] “부면장 어르신 부자를 죽인 이 개만도 못한 놈아. 네놈이 부면장네 살림을 차지할라고 눈이 뒤집혀서……”

아버지를 끌고 나가면서 그들은 목청껏 소리쳤다. “이놈들아, 네놈들 죄를 왜 나한테 뒤집어씌우냐. 천벌을 받을 놈들아.”

아버지는 발부리에 힘을 쏟아 땅을 밀어 버티고, 흘랑이 밧줄을 움켜쥐고 잡아당기며 발버둥치고 울부짖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이 센 아버지였지만 네 사람의 청년들에게는 당해내지 못했다.

그들은 흘랑이 밧줄을 잡아당기고 작대기로 허리와 어깨를 후려치며 발버둥치는 아버지를 끌고 이슬이 안개가 되어 몽글몽글 퍼지는 까치산으로 들어갔다.

㉡ 나는 이미 아버지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다. 내 힘으로 아버지를 살려낼 수는 없었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라도 보고 싶어서, 목이 터지도록 아버지를 부르며, 뒤따라갔다. 그러자 아버지를 끌고 가던 청년들이 나를 붙잡아, 동구 밖 상여바위 옆, 마을 사람들이 개를 잡을 때 매달아 죽이는 Y자 모양의 미루나무에 묶어버렸다. 나는 미루나무에 묶인 채 아버지가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상수리나무며, 복가시나무, 가시나무, 쥐똥나무, 황철나무 등 잡목이 울창한 까치산 후미진 계곡 속으로 끌려간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아버지의 슬픔과 분노가 범벅된 아버지의 울부짖음만이 산울림처럼 쩌렁쩌렁 울려왔다.

월곡리 사람들은 아무도 아버지의 죽음을 말리지 않았다. 아이들과 노인들까지도 마을 앞 돈들막\* 위에 모여 서서는 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리더라도 하는 것처럼 무표정하게, 까치산 계곡에서 울려오는 아버지의 울부짖음을 심장에 송곳질하는 아픔을 참으며 듣고 있을 뿐이었다.

[중략 줄거리] ‘나’는 친구 장돌식과 함께 아버지를 묻은 후 마을 사람들에게 복수하리라 결심하고, 고향을 떠난 지 삼십 년 만에 다시 돌아와 장돌식을 만난다.

나는 그에게, 월곡리에서 나가서 장사치가 되어 돈을 번 이야기를 했고, 그는 내게 그의 홀어머니가 염병에 걸려 죽은 이야기며, 장가를 들자 주막을 걸어치운 것, 요즘엔 떡갈나무 잎을 따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사람들한테 팔아 쓸쓸하게 재미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해주었다. ㉢ 그러면서 그는 비록 가난하지만, 병신인 자신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사는 건강한 아내와 말 잘 듣는 여섯 아이들이 있어 행복하다고 했다.

우리들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 윤기가 자르르한 달빛이 비단처럼 우리의 우정을 감싸주었다. 달빛이 까치산 계곡을 빗질하듯 곱게 훑어 내리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삼십 년 전 아버지가 마을 청년들한테 끌려가면서 울부짖던 목소리가 찌르르 뇌를 뚫었다.

“참 부면장네는 어떻게 사는가?”  
나는 그때 아버지를 끌고 간 마을 청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물었다.

“살림이 작살이 났다네.”  
“작살이 나다니, 왜?”  
“모르재. 부면장 손자놈이 다 썩그라 묵었으니까.”  
“도련님은 살아 계시고?”

“㉣ 그 양반 불쌍하게 됐네. 우리 모양으로 날마다 떡갈나무 잎 따러 댕기네.”  
“살아 있다니 다행이구만. 그 양반한테만은 우리 아버님이 부면장 어른 부자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줘야……”

“그 걱정은 말소.”  
“우리 아버님은 절대로 죽이지 않았네!”  
“그 일이라면 풀세. 만천하에 밝혀졌다네. 자네가 월곡리에서 나간 뒤 한 오 년쯤 되었을까? 비석거리 덕길이라고 두껍다리 옆 만춘이라고 대판싸움이 벌어졌는데, 덕길이 입에서 부면장 부자와 이장을 죽인 것이 바로 만춘이 네놈이라고 하면서, 그 죄를 덮어씌울라고 자네 아버님을 애매하게 죽인 것까지 폭로가 되고 말았네.”

“그래 만춘이는 뭐라고 허든가?”  
“혼자 한 일이 아니고 같이 한 일이라고 물고 늘어지더구만. 그때서야 월곡리 사람들은 자네 부친이 억울하게 죽은 것을 알았제.”

㉤ 장돌식의 말을 들은 나는 실직한 돌멩이를 하나 집어 마을 쪽으로 힘껏 던지고 나서, 달빛이 점점 맑아지는 까치산을 바라보았다.

“그 사람들 다 그대로 월곡리에 사는가?”  
나는 그날 아버지를 까치산으로 끌고 가던 청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대며 물었다.

“만춘이만 월곡리를 떠나 살다가 삼 년 전에 다시 돌아왔네.”  
나는 비로소 장돌식이한테 월곡리에 돌아와서 해야 할 일들을 말해 주었다.

- 문순태, 「말하는 돌」 -

\* 흘랑이 : ‘올가미’의 사투리  
\* 돈들막 : 높게 두드러진 평평한 땅 중에서 비탈진 곳

34.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내적 갈등으로 인해 사건이 심화되고 있다.
- ②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서술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객관적인 태도로 사건의 경과를 제시하고 있다.
- ④ 장면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사건의 긴박감을 고조하고 있다.
- ⑤ 인물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갈등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3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가족을 잃은 슬픔보다 생리적 욕구의 충족이 먼저일 만큼 힘들었음을 보여준다.
- ② ㉡: 주인공의 아버지가 부면장네 부자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 ③ ㉢: 인물이 소박하고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지니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④ ㉣: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인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낸다.
- ⑤ ㉣: 인물의 행동과 배경을 제시하여 주인공의 심리를 암시한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전쟁으로 인해 인간성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분열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작품 속 배경인 한국전쟁은 전선(戰線)이 오르내리면서 진행되었기에 소설 속 마을 사람들은 남과 북에 모두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과 안위를 위해 같은 마을 사람을 해치거나 그것을 방조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전쟁의 참담함을 고발하고 있다.

- ① ‘만춘이’가 마을 사람을 해친 행동은 인간성이 파괴된 모습으로 볼 수 있군.
- ②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 분열된 월곡리 공동체가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③ ‘부면장네 가족들’은 북에 협조하여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들에게 분노를 느꼈음을 알 수 있군.
- ④ ‘월곡리 사람들’은 ‘아버지’의 죽음에 고통을 느꼈지만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침묵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⑤ ‘붉은 별을 붙인 사람들’이 사라지고 푸른 제복의 ‘도련님’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한국전쟁의 전선이 오르내렸음을 알 수 있군.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날이 밝아올 무렵 여인은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하생은 깜짝 놀라 이렇게 말했다.

“이제 겨우 좋은 만남을 이루었거늘 갑자기 왜 그러요?”

“여기가 실은 인간 세상이 아닙니다. 저는 시중 아무개의 딸입니다. 죽어서 이곳에 장례 지낸 지 오늘로 사흘이 되었군요. 제 아버지는 오랫동안 요직을 지내며 권세를 누리셨는데, 아버지께 밭보여 해코지를 당한 사람들이 몹시 많았답니다. 원래 아버지는 5남 1녀를 두셨지만, 다섯 오빠가 모두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뜨고 저 혼자 아버지 곁에 있다가 지금 또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제 옥황상제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이런 분부를 내리셨어요. ‘네 부친이 큰 옥사(獄事)를 처결하면서 죄 없는 사람 수십 명의 목숨을 모두 구해주었으니, 이로써 지난날 못 사람들을 해코지 했던 죄를 용서 받을 만하다. 다섯 아들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돌이킬 수 없으니 너를 돌려보내야겠다.’ 저는 절하고 물러나왔어요. 그런데 옥황상제께서 약속하신 날이 바로 오늘 아침이어요. 이때를 놓치면 저는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답니다. 지금 서방님을 만났으니 이 또한 하늘이 정한 운명이겠지요. 오래 오래 행복하게 살며 죽을 때까지 서방님을 받들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어요?”

하생 또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대의 말대로라면 생사를 걸고 그대의 뜻을 따르겠소.”

그러자 여인은 베갯머리에서 금척을 뽑아 하생에게 주며 말했다.

“서방님께선 이 물건을 가지고 가서 서울 저잣거리의 큰 절 앞에 있는 노뎃돌 위에 올려 두십시오. 그러면 분명 이 물건을 알아보는 자가 있을 겁니다. 어떤 곤욕을 당하더라도 제 말을 부디 잊지 말아 주세요.”

“알겠소.”

여인은 하생더러 빨리 나가 보라고 재촉했다. 마침내 이별하기에 이르자 절구 한 편을 지어 읊으며 하생을 보냈다.

산유화 처음 지고 산새들 지저귀더니  
 봄소식 어느덧 어둠 속에 돌아오네  
 생사를 맡겨 은혜가 막중하니  
 어서 금척 들고 인간 세계로 나가셔요

하생이 집을 나와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 새로 쓴 무덤만 하나 있었다.

**[중략 줄거리]** 하생은 큰 절 앞 노뎃돌에 금척을 놓아두었다. 얼마 뒤 하생은 소복을 입은 여인과 사내종 두 명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고 시중의 집으로 끌려간다. 시중을 만난 하생은 전날 밤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해 준다.

시중은 차츰 얼굴에 부끄러운 빛을 띠더니 한참 뒤에 이렇게 말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때 주렴 안에서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헤아리기 어려운 일이니 철저히 확인하고 나서 죄를 주어도 늦지 않겠어요. 저 선비의 이야기를 듣자니 평소 우리 딸

아이의 용모며 옷차림과 많이 똑같아요.”

시중이 말했다.

“그렇군. 즉시 삼과 삼태기를 준비하고 가마를 대령하라. 내가 직접 가 봐야겠다.”

시중은 하인에게 하생을 지키게 하고 길을 나섰다.

무덤에 이르니 봉분의 모습은 예전 그대로 변함이 없었다. 시중은 의아히 여겨 무덤을 파 보았다. 무덤 속의 딸은 안색이 산 사람과 같았다. 심장 있는 쪽을 만져 보니 조금 온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시중은 유모를 시켜 딸을 안게 하고 가마에 태워 집으로 돌아왔다. 무당이나 의원을 부를 겨를도 없어 가만히 안정을 취하도록 할 따름이었다.

해질녘이 되자 시중의 딸이 깨어났다. 여인은 부모를 보더니 한 번 가느다란 소리를 내어 흐느꼈다. 기운이 차츰 진정되자 부모가 물었다.

“네가 죽고 난 뒤에 무슨 이상한 일이 있었니?”

“저는 꿈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정말 죽었었나요? 별 다른 일은 없었어요.”

여인은 그렇게 말하며 뭔가 수줍어하는 기색이었다. 부모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차 캐묻자 여인이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하생이 했던 말과 꼭 들어맞는 것이었다. 온 집안 사람들이 무릎을 치며 놀랐다. 이제 하생은 그 집 사람들에게 몹시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되었다.

며칠이 지나자 여인은 평상시의 모습을 완전히 회복했다. 시중은 하생을 위로하기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서 시중은 하생의 집안에 대해 묻고, 또 하생이 혼인했는지 여부를 물었다. 하생은 아직 혼인하지 않았다고 말한 뒤 부친은 평원 고을의 유생으로 오래전에 작고하셨다고 대답했다. 시중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안으로 들어가서 아내와 의논하였다.

“하생의 용모와 재주가 참으로 범상치 않으니 사위로 삼는다고 해도 문제될 건 전혀 없겠소만 집안이 서로 걸맞지 않구려. 더구나 이번에 겪는 일이 너무 괴상망측하고 보니 이 일을 계기로 혼인을 시켰다가는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을까 싶소. 그래서 나는 그냥 재물이나 후하게 주어 사례하는 것으로 끝냈으면 싶소.”

부인이 말했다.

“이 일은 당신이 결정할 문제인데, 어찌 제가 나서겠어요?”

하루는 시중이 또 잔치를 열어 하생을 위로하며 하생의 소원을 물었는데 혼사에 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하생은 답답하고 불쾌한 마음으로 숙소에 돌아와 가슴을 치고 속을 태우며 약속을 저버린 여인을 원망했다. 하생은 곧바로 절구 한 편을 지어 작은 종이에 쓰더니 여인의 유모더러 여인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옥에 티끌이 묻었다 해서 더럽혀질 건 없나니  
등지로 돌아간 봉황새가 난새를 돌아볼 리 있겠는가  
팔뚝 위의 눈물 자국 사라지지 않았거늘  
꿈속의 좋았던 만남 지금 외려 부끄럽네

여인은 하생의 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저간의 사정을 묻은 뒤에야 비로소 부모가 하생의 마음을 저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인은 즉시 몸이 아프다며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

- 신광한, 「하생기우전(何生奇遇傳)」 -

3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사건의 인과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 ② 선과 악의 뚜렷한 대립 구도를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작중 상황과 사건을 전지적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 ④ 구체적인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⑤ 두 편의 삽입시 모두 주인공이 맞이하게 될 비극적 운명을 암시하고 있다.

3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인’은 자신이 ‘하생’과 천생연분(天生緣分)이라고 생각하였군.
- ② ‘여인’은 ‘하생’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의 자초지종(自初至終)을 들려주었군.
- ③ ‘하생’에게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시중’은 반신반의(半信半疑)했겠군.
- ④ ‘시중’은 무덤 속 ‘여인’이 깨어난 것을 확인하고는 혼비백산(魂飛魄散)하였군.
- ⑤ ‘유모’에게서 전달받은 ‘하생’의 시를 읽은 후 ‘여인’은 식음전폐(食飲全廢)하고 있군.

39. <보기>를 참고할 때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 작품은 남녀 주인공이 두 번의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혼인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시련은 비현실적인 요소에서 비롯되며, 두 번째 시련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겪게 된다. 그리고 시련의 발생과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재와 공간적 배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 ① 여인의 집이 무덤이었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 ② 하생의 첫 번째 시련은 혼인을 약속한 대상이 죽은 여인이었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 ③ 하생이 여인에게서 받은 금척은 첫 번째 시련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재이다.
- ④ 시중이 집안 차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둘의 혼인을 반대하는 것이 두 번째 시련이다.
- ⑤ 시중의 집에서 하생을 위해 잔치를 베풀 것은 두 번째 시련을 극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아베요 아베요  
 내 눈이 티눈\*인 걸  
 아베도 알지러요.  
 등잔불도 없는 제사상에  
 축문\*이 당한기요.  
 눌러 눌러  
 소금에 밥이나마 많이 묵고 가이소.

[A] 운사월 보릿고개  
 아베도 알지러요.  
 간고등어 한 손이든  
 아베 소원 풀어드리련만  
 저승길 배고플랴요  
 소금에 밥이나마 많이 묵고 묵고 가이소.

[B] 여보게 만술(萬述) 아비  
 니 정성이 엄첩다\*.  
 이승 저승 다 다녀도  
 인정보다 귀한 것 있을락꼬,  
 망령(亡靈)도 응감(應感)하여, 되돌아가는 저승길에  
 니 정성 느껴느껴 세상에겐 굶은 밤이슬이 온다.

- 박목월, 「만술(萬述) 아비의 축문(祝文)」 -

\* 티눈: 까막눈  
 \* 축문: 제사 때에 읽어 천지신명(天地神明)께 고하는 글  
 \* 엄첩다: '대견하다'의 경상도 방언

(나) 병원에 갈 채비를 하며  
 어머니께서  
 한 소식 던지신다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여

주말엔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그래도 큰애 네가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아녘냐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참외밭에 지푸라기도 깔고  
 호박에 따리도 받쳐야겠다  
 그것들도 식군데 의자를 내줘야지

싸우지 말고 살아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나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여

- 이정록, 「의자」 -

40. (가), (나)의 표현상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심화하고 있다.
- ②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여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
- ③ 대립적인 의미의 시어로 비판적 현실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화자의 심경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시어의 반복으로 화자 자신의 부정적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41. (가)의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A]와 [B]에서 '저승길'을 가는 주체는 '만술 아비'이다.
- ② [A]의 '아베 소원'에 [B]의 '망령'도 응하여 감동하고 있다.
- ③ [A]의 '보릿고개'는 [B]의 '이승 저승'을 다 다니며 겪는 것이다.
- ④ [B]에서 '밤이슬'이 오는 것은 [A]의 '소금에 밥'을 바치는 마음 때문이다.
- ⑤ [B]에서 '엄첩다'고 한 것은 [A]에서 '간고등어 한 손'을 준비했기 때문이다.

42.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은 '의자'라는 상징적 소재로 어머니의 경험에 따른 인식과 삶에 대한 통찰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인식과 통찰을 바탕으로, 어머니는 죽은 남편과 자연물에까지 포용력과 배려심을 보이게 된다. 이를 통해 자식에게 전해 줄 세상살이의 이치를 표현하고 있다.

- ① 어머니는 허리가 아픈 경험을 계기로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인식하게 돼.
- ② 어머니가 '아버지 산소 좀 다녀'오라고 한 것은 죽은 남편을 배려하는 마음을 담은 말이야.
- ③ 의자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였다는 것은 '아버지'가 '큰애'에게 위로받고 의지했다는 뜻이야.
- ④ '참외밭에 지푸라기'를 깔겠다는 어머니의 말에서 자연물도 '식구'로 느끼며 포용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어.
- ⑤ 어머니는 '의자'가 '그늘 좋고 풍경 좋은' 곳에 놓여야 가족끼리 서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치를 드러내고 있어.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설] 이 작품은 일인극\* 형식으로 진행된다.

[앞부분 줄거리] 염쟁이 유씨는 취재하러 온 기자(관객으로 설정)에게 염\*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유씨가 되어: 자, 이제 반함을 해야 해. 염을 하기 전에 시신의 입안에다가 구슬이나 엽전, 물에 불린 쌀을 때 넣어 주는 건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잠깐만 기다려봐. 내 금세 가지고 나올 테니 (무대 중앙 설치물 뒤쪽으로 들어간다. 곧바로 설치물의 다른 편으로 외투를 입은 장 이사가 나온다.)

장 이사가 되어: (두리번거리면서 유씨를 찾으려) 계십니까? 유 사장님!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이 노친네 또 어디 갔노? (기자에게) 오늘 뭘 일 있나? 사람들이 억수로 많이 모였구마. (지갑을 꺼내 기자에게 명함을 건네며) 연락 주이소. 차세대 장의 대행 전문 업체 <천국으로 가는 계단> '장사치' 이십니다. 그냥 장 이사라고 불러 주이소. 언제든지 연락만 주이소. 발상, 부고에서부터 삼우제까지 장의 일체를 완벽하게 대행해 드립니다. 곡도 대신 해주고, 손님 접대는 물론, 상주가 엄스모 상주도 빌리드립니다. 최고의 관, 최상의 수의, 주야 24시 항시 대기, 수의 염가 제공, 아름다운 꽃상여로 천국으로만 모십니다. 연락 주이소. (관객 하나를 보고) 아니 이거 박 형사님 아니십니까? 아이구마 지난번에는 참말로 고마웠습니다. 관광버스 전복 사고 때 박 형사님이 즉각 연락 주셔서 25명 차떼기로 장례 치렀다 아닙니까. 앞으로도 종종 연락 주이소. (다른 관객에게) 이게 누고? 병복이 아니냐? 아따야 반갑다야. 내다. 내 사치. 유치원 동창 사치다. 니 요즘 뭐하고 지내노? 으이? 한국병원 사무장이냐? 증말 반갑데이. 그 병원 말기 암 환자들 많채? 연락 좀 주그레이. 그나저나 유 사장님은 어디 가셨는고?

[A]

(장 이사는 설치물로 유씨를 부르며 들어가고, 곧바로 다른 편에서 외투를 벗은 유씨가 불린 쌀이 담긴 대접을 들고 나온다.)

유씨가 되어: 뭘 소리여? 누가 왔어? (기자가 들고 있는 명함을 보더니 화를 내며) 아니 이놈이 온 게여? 이런 미친 놈! 와서 뭐라든가? 뻥하지. 장의 사업이 어떻게 저떻게 되도 않는 소리나 지껄었겠지. 망할 놈! 세상이 아무리 돈이면 만사가 장땡이라지만, 어떻게 시체까지 돈으로 보낸 말여. 이놈 어디 갔어? 내 이놈을 그냥!

[B]

(유씨는 설치물 뒤로 분주히 들어가고 장 이사가 다른 쪽으로 나온다.)

장 이사가 되어: (주변을 훑어보면서 못마땅한 표정으로) 유 사장님 저 안에 없던데예? 어디 가셨노? 오늘은 꼭 만나야 하는데... 지는 유 사장님이야말로 참말로 훌륭하고 또 고귀한 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모요! 이 일만큼 보람되고 신성한 직업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라고! 사람들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카는데 거기 아닌기랴요.

(중략)

그나저나 이 양반이 어디 있노? (설치물 뒤를 보며) 유 사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한참 찾았습니더. 유 사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이소. 암만 사방 팔방에 고객이 지천으로 널렸다 캐도 그캐 다 돈으로 연결되는 거이 아닌기랴요. 가마이 앞아가 들어오는 시체만 염하모 어느 천 년에 돈을 모으겠는고? 요즘 같은 경쟁 시대야말로 공격적인 마케팅! 이기 중요한 기랴요. (설치물 뒤로 들어가며 목소리만 들린다.) 그러니 지하고 전국적인 장의 체인망을 만들어가꼬 한몫 잡아보입시더. 유 사장님요! 와 이러십니까? 내가 생선도 아이고... 뿔뿔! 아이고 짜거워라! 그만 좀 하소. 가면 될 거 아이가!

[C]

(유씨는 소금 그릇을 들고 반대편으로 나온다.)

유씨가 되어: (소금을 뿌리며) 아무리 세상에 별의별 인간이 다 모여 산다지만, 죽음을 돈으로 흥정하는 것들은 사람도 아녀! (물에 불린 쌀이 담긴 그릇과 버드나무를 깎아 만든 숟가락과 젓가락을 찾아 들고) 괜히 힘썼더니 숨차네. 아이고... 지금부터 하는 걸 반함이라고 허네. 염을 하기 전에 시신의 입에 구슬, 엽전, 물에 불린 쌀 같은 걸 때 넣어 주는 게지. (병풍 뒤로 가서, 시신 인형의 입을 벌려 숟가락으로 쌀을 때서 넣는 시늉을 한다.) 이렇게 쌀을 넣어주는 이유는 먼 저승까지 갈 동안의 양식을 마련해 주는 게여. 처음에는 입의 오른쪽에, 이어서 입의 왼쪽, 맨 나중에는 입의 한 가운데, 이렇게 세 번 때 넣어주네. "백 석이요.", "천 석이요.", "만 석이요." (유씨가 먼저 소리를 하고 관객들이 따라하게 한다.)

[D]

- 김인경, 「염쟁이 유씨」 -

\* 일인극: 한 명의 배우가 여러 역할을 하며 극을 이끌어 가는 연극  
\* 염: 시신을 수의로 갈아입힌 다음, 베나 이불 따위로 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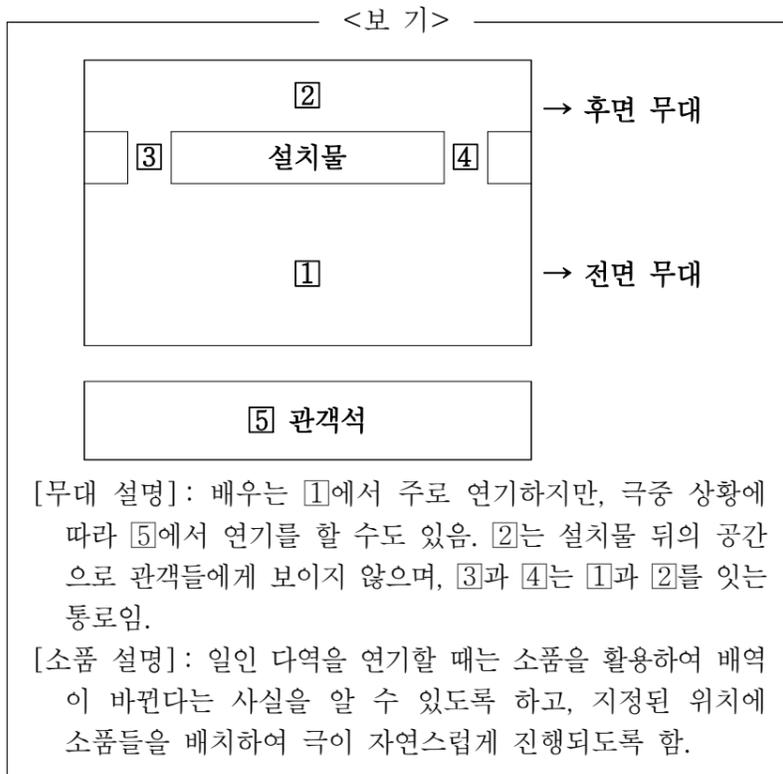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투리를 사용하여 인물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하고 있다.
- ② 지시문을 통해 인물의 말과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새로운 인물의 등장률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 ④ 등장인물이 대사를 활용하여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⑤ 등장인물에 작위적인 이름을 부여하여 그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44.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유씨는 장 이사와 동업하기를 원하고 있다.
- ② 장 이사는 동창의 도움으로 큰돈을 번 적이 있다.
- ③ 장 이사는 사람들의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 ④ 유씨는 전국적인 장의 체인망을 만드는 일에 고심하고 있다.
- ⑤ 유씨는 장 이사를 만나기 전부터 그가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알고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상연하고자 할 때, [A] ~ [D]에서 연출가가 지시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 ~ [D]: 유씨는 외투를 벗고 장 이사는 외투를 입고 연기해 주세요.
- ② [A]: 명함을 활용하여 장 이사가 ⑤에서 관객을 대상으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③ [B]: 극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장 이사가 ③으로 퇴장하면, 유씨는 반대편인 ④에서 등장해 주세요.
- ④ [C]: 장 이사와 유씨가 ②에서 만난다는 설정을 관객이 알아챌 수 있도록 연기해 주세요.
- ⑤ [D]: 배우가 연기를 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①에는 소품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